

존경하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저는 미국 Michigan 주에 있는 미국 전역에서 사범대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고 또한 매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Eastern Michigan University 에서 창의력과 영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경희 입니다. 저는 매 여름 방학때 마다 제 모국을 방문하여 수백 수천의 교사들을 연수를 해 오고 있고 또한 2004 년과 2005 년 두해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에서 Dr. Cramond 와 함께 과학영재교사들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경상북도 과학교육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과학영재교사들을 지도하였고, 또 지난 주에는 미국 토런스 센타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과학영재교사들 29 명을 2 주간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오기전에 조지아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교사들의 미국 토런스센타에서의 창의력 교육연수를 책임을 맡아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교사경력 10 년과 미국교실 경험을 잘 활용을 하여 한국교실에 어느 미국교수의 어떤 강의가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부임이 된 이후로도 계속 그 일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꼭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영재교육과 창의력교육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5 년 8 월 14 일부터 8 월 27 일까지의 전북교육청 소속교사들의 미국 토런스센타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8 월 23 일에 그 당시에 과학정보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선 장위현 과장님께 드린 편지를 아래에 다시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위현 과학정보과과장님.

과장님 제가 정식으로 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어제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서정모 장학관이 김영극 장학사와 박진홍 연구사를 데리고 어디로 놀러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한국교사들 연수를 수차례하면서도 이런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솔자로 왔으면 다른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제가 여기 미국의 교수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다른 교사들이 딴 곳으로 새는 것을 막아서 하나라도 더 잘 배워가도록 앞에서 지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관광을 나갔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인 저 역시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교육부 장관님께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Tuesday, August 23, 2005 2:34 PM”

제가 이 편지를 드린 후에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나 토런스센타 측의 어느 누구도 이 것에 대한 해명을 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저희들이 우려한 대로 2006년도 전북교육청 소속영재교사 해외연수는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토런스 센타에 이제 더 이상 연수단을 보내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벌어진 일에 대한 해명은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소요해서 교사들을 해외에서 연수하는 것은 전북도교육청에서의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그 것이 큰 사업이 아니라도 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해외연수단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더군다나 위의 세분의 연수지도단들이 관광을 떠날 때에 연수단 교사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비상식량까지도 모두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간 것을 볼 때에 21 세기를 책임질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이 아직도 그러한 횡포에 말한마디 할 수 없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연수단들이 이곳 토런스센타에 와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서 내모국의 전북 골짜기 골짜기의 영재들을 잘 발굴해내서 그들의 영재성과 창의력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를 세계어느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한국교사연수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작년에 전북교육청교사들의 연수를 마치고 제가 사는 이곳 Michigan 까지 18 시간을 운전해 오면서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하는구나’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3 월 부터 연수를 계획하고 각 학교방문 관계자, 기타 시설방문관계자, 식당관계자, 호텔관계자, 강의하는 교수님들과 의논을 하고, 그 한 건의 연수단이 연수를 받기 까지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정성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이지요?

1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한 연수에 투입을 해 놓고 왜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 저나 미국교수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5년의 연수단에 대한 정식의 해명이 없는 한, 앞으로의 전북도교육청의 어떠한 토런스센타의 연수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아니 토런스센타에서의 연수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교수 김경희 올림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권영심 장학관님께

이렇게 제게 글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연수단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강의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겠다는 막연한 어떤 감이 라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쓸데 없는 다른 곳에 모두들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단을 보낼 때에는 제일 처음에 선발을 할 때에 영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창의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적과 수상경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열성과 같은 것이 주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는 지에 관한 것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아실테니까요. 열성이 첫째기준이 될 수가 없을까요?

두째는 연수단을 보내기 전에 사전연수를 좀 강력히 하여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한 개인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대표로 오신다는 것을 주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나는 다시 이곳에 올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연수단들을 가르치시는 미국교수님들에게는 연수단들이 한국교사들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또한 연수단들이 방문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과학박물관, 스톤마운틴, 시엔엔, 코카콜라 등등의 곳에서 바라보는 연수단들은 저것이 바로 한국사람들이구나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항상 예의바르고 또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한국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엔엔에 들어 갈때 제가 한국말 해석판 유인물을 선생님들께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씨엔엔 안을 구경하는데 영어 가이드가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투어를 하신 후에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씨엔엔에 반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에이 이것만 부만 내가 그냥 가지고 가면 어때' 하고는 다시 반납하지 않은 분이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씨엔엔 측에서는 전세계 수십개국의 언어로 번역한 유인물 중에서 유독 한국판의 것만 자꾸 더 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민성이 아직도 미개하다고 미국사람들이 본다면 먼저 한국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모든 제품의 질을 한단계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낮게 보는 경향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수업시간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손을 들고 기다렸다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사람들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 훈련이 된 것입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못하시는 것이고요. 하여튼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에 동감을 하는 미국인들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사람들이 우리선생님들보다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바르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 아이러니 하지요.

세째는 연수단을 인솔하는 연수단장이 도교육청에 소속된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교의 교감선생님은 다른 학교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으니 도교육청 소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신 분이 인솔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토런스센터의 진행단들이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요. 이번에는 대표는 유명무실이고 저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 놓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몰라해야 했었습니다.

네째는 연수 프로그램을 짜면서 여행을 먼저하고 나서 토런스 센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의 네가지 바램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여행을 하고 나서 오면 연수에만 전념할 수 있고 여행에 쓸 돈이 충분히 남았나 안 남았나 하는 것에 신경을 안써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수를 먼저하고 나서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행한 것만 머리에 남아 있고 연수에서 배운 것은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토런스센터에서 배운것을 고대로 머리 속에 사슴 속에 간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해외연수를 갔다 온 선생님들 중에 토런스 센터에 와 보시지 못하신 선생님들 중에 아주 창의적 과학교육에 열성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저나 토런스센터 측 의견으로는 많은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 보다는 소수정예요원 처럼 몇 분의 뛰어난 교사를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청에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순천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다섯분만 더 계신다면 경북도교육청 내에서의 학생들의 창의력교육은 다 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토런스 센터에 갔다오신 분들이나 또는 한국에서 저와 닥터 크레몽드에게서 연수를 받으시고 나서 앞서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창의력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나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힘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다 제 대학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 자판이 없습니다. 또 한국말 자판을 설치하면 온라인 수업하는 데에 자꾸 에러가 생겨서 한국자판이 없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자도 많습니다. 너그러히 용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Korean Delegation-KyungBuk Department of Education (8/13 - 8/26/06)

Week One	Sun 8/13	Mon 8/14	Tue 8/15	Wed 8/16	Thu 8/17	Fri 8/18	Sat 8/19
8:00-9:30		Greetings from Margaret & Lee	8:00 am School visit- Whitehead Road School	Cramond: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Gifted	8:00 am School Visit- BHL Middle School	Mathews: Activities Using Insects in the Science Classroom I	8:00 Fort Discovery @ Augusta
9:30-9:45		Break		Break			
9:45-11:15		Hang Eun Lee: Creativity & Bilingual		Oldfather: Teaching Students to Conceptualize the Future		Mathews: Activities Using Insects in the Science Classroom II	
11:15-1:15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 Fort Discovery
1:15-2:45	1:00: Creative Adventure @ Athens	HannEun Lee: Teachers' attitude toward their brilliant students	Cramond: What is Creativity?	Grantham: mentoring I	Mathews: Extracurricular Options for Highly Able Science Learners I	Bandalos: Assessing student achievement creatively	1:00 Stone Mountain @ Atlanta
2:45-3:00		Break		Break		Break	
3:00-4:30		Creative Tour @ UGA	Hartsell: Strategies for Teaching a Gifted Unit on Invention	Grantham: mentoring II	Mathews: Extracurricular Options for Highly Able Science Learners II	Hartsell: Science Toys Can Stimulate the Imagination	

Week Two	Sun 8/20	Mon 8/21	Tue 8/22	Wed 8/23	Thu 8/24	Fri 8/25
8:00 – 9:30	Free Time & Creative Recreation of Your Own	Kim: About Dr. Torrance	Kim: Underachievement & creativity	8:00 School Visit- Wheeler Magnet High School @Cobb County Lunch	Kim: Kim: Culture & Creativity	Good Bye
9:30- 9:45		Break	Break			
9:45-11:15		Kim:TTCT	Kim: TTCT	CNN, CoCa Cola, & Discovery Mall	Cramond: Creativity StrategyII	
11:15- 1:15		Lunch	Lunch		Lunch	
1:15- 2:45		Cramond: Multiple Criteria	Tippins:Teaching Science as inquiry: Hands-on, minds-on oceanograp hy for K-8 science classrooms	Cramond: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2:45- 3:00	Break	Break	Break			
3:00- 4:30	Cramond: Creativity StrategyI	Tippins:Teaching Science as inquiry: Hands-on, minds-on geology for K-8 science classrooms	3:30-5:00 Winstead: Problem solving			

- Thursday, 8/24– Closing Ceremony & Farewell Party @ a Korean Restaurant

Kyung-Hee Kim

From: "Kyung 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To: "???" <jang3319@hanmail.net>
Sent: Tuesday, August 23, 2005 2:34 PM
Subject: ?? ?? ?? ??

안녕하세요. 장위현 과학정보과과장님.

과장님 제가 정식으로 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어제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서정모 장학관이 김영극 장학사와 박진홍 연구사를 데리고 어디로 놀러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한국교사들 연수를 수차례하면서도 이런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솔자로 왔으면 다른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제가 여기 미국의 교수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다른 교사들이 딴 곳으로 새는 것을 막아서 하나라도 더 잘 배워가도록 앞에서 지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관광을 나갔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인 저 역시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교육부 장관님께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Professors' Biographies for Summer 2006 Torrance Center Training

1. Deborah Bandalos

Dr. Deborah Bandalos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and teaches in the program in Research, Evaluation, Measurement, and Statistics. Prior to accepting a positio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Dr. Bandalos was Assistant and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nd served as head of the program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ducation. During her time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Dr. Bandalos was also affiliated with the Buros Center for Testing and the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Program and was awarded the Gallup Research Professorship. Dr. Bandalos has taught courses in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statistics and measurement, includ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the past 15 years. Her research areas includ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cale development techniques,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educational accountability and assessment systems. Dr. Bandalos has published articles in many journals includ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and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s well as book chapters in the volume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and *A Second Cours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thcoming). She serves on the editorial boards of *Psychological Metho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as an ad hoc editor for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and *Educational Researcher*.

2. Bonnie Cramond

Titles of Presentations: What is Creativity?; TTCT I & II; Characteristics of Gifted.

Dr. Bonnie Cramond is a Professor of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he is a Research Fellow with the Torrance Center for Creative Studi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NAGC), is on the NAGC President's Education Commission, the editor of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on the editorial advisory board for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and works with several other journals. She's had experience teaching and parenting gifted and creative children, has published papers, chapters, and a book on giftedness and creativity, and has presented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Currently, she teaches graduate level courses in giftedness and creativ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in creativity assessment and the nurturance of creative abilities in children.

Bonnie Cramond, Ph.D.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Georgia
323 Aderhold Hall
Athens, GA 30602-7143
FAX 706-542-4240
Phone 706-542-4248
E-mail Address: bcramond@uga.edu

3. Tarek C. Grantham

Titles of Presentations:

Addressing the Social and Emotional Needs of Gifted Youth

Underachievement among gifted students: Causes, Consequences and Cures

Mentoring gifted students

Dr. Tarek C. Grantham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He teaches course in the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Program and his research addresses the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and underachievement among diverse youth (particularly African Americans) in programs for gifted students. In his area of research, Dr. Grantham emphasizes mentoring,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ervice learning as important means to enhance motivation, and leadership talent development among diverse youth. He has published and presented on these issues to local, state, and national audiences to inspire educators, parents, policy makers, and the like, to be proactive in their efforts to reverse under-representation and underachievement among diverse youth. To support his scholarly agenda, Dr. Grantham has been awarded research grants sponsored by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and The University of Georgia College of Education to address barriers that negatively impact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talented youth in pre-K-12 gifted programs.

4. Brandis Hartsell

Title of Presentation: Science Toys Can Stimulate the Imagination I & II

Dr. Brandis Hartsell has a degree in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She has been teaching gifted programs at the middle and elementary levels for 20 years. For several years, Dr. Hartsell taught and directed the University of Georgia's Summer Challenge Program for talented and motivated children. She also coached several state and international award-winning teams for the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She is the environmental coordinator for her school has been the recipient of numerous environmental grants and awards. One of her many interests is in using manipulatives to explore scientific ideas, enhance creative thought, and satisfy childrens' natural desire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Dr. Hartsell is a Clarke County School District Teacher of Excellence.

Brandis Hartsell, Ph.D
Gifted Program Instructor
Whitehead Road School
500 Whitehead Rd.
Athens, GA 30606
E-mail Address: hartsellb@clarke.k12.ga.us (school); brandis51@charter.net (home)

5. Kyung Hee Kim

Titles of Presentation: About Dr. Torrance (with the video tape); Learning from each other:

Creativity in East Asian and American Education; Explo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Asian Culture (Confucianism) and Creativity I & II, etc.

Dr. Kyung Hee Kim is in an assistant professor with the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in Eastern Michigan University. She obtained a Ph.D. from the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he has worked at the Center for Test Scoring & Reporting Services as a research assistant and has also worked at the Torrance Center for Creativity & Talent Development as the International Program Coordinator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Her research interests are (1) Understanding nature of creativity (by comparing with intelligence, achievement, etc.), (2)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creatively gifted students (and identifying creative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3) Assessing creativity (including validity studies for creativity tests), and (4) Nurturing creativity, particularly concerning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teractions with creativity.

Kyung Hee Kim, Ph.D.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Phone 734.487.7120 (office)
706-714-1074 (cell)
E-mail Address: kyungheekim556@hotmail.com

6. Michael S. Matthews

Titles of Presentation: Science Fair Projects for Meeting the Needs of Gifted and Creative Learners; Activities Using Insects in the Science Classroom.

Dr. Michael S. Matthews received his Ph.D. in Educational Psychology with a concentration in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in 2002. Prior to his doctoral studies Dr. Matthews taught high school chemistry and physical science.

Dr. Matthews is presently completing a postdoctoral appointment as Research Fellow with the Duke University Talent Identification Program. Duke TIP coordinates above-level testing and provides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for highly able students in grades 4-11 across a 16-state region. Dr. Matthews' research at Duke TIP has examined various aspects of underachievement behaviors among highly able students. He is also

the incoming program chair for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s special interest group, Research on Giftedness and Talent.

This summer Dr. Matthews begins an appointment as Assistant Professor of Gifted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in Tampa, where he will teach graduate classes in creativity and in gifted education.

Dr. Michael S. Matthews is Dr. Robert W. Matthews' son.

7. Robert W. Matthews

Titles of Presentation: Science Fair Projects for Meeting the Needs of Gifted and Creative Learners; Activities Using Insects in the Science Classroom

Dr. Robert W. Matthews i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pecializing on insect behavior, particularly wasps. He is author of six books and more than 150 scientific and popular publications on insects. A current enterprise is the WOWBugs Project, an extensive life science curriculum development for pre-college students. He is a member of the UGA Teaching Academy and his teaching includes courses in insect behavior, animal behavior, and entomology for teachers. He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his Ph.D. from Harvard University.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entomology.ent.uga.edu/personnel/faculty/matthews.htm>

Robert W. Matthews, Ph.D.
Dept. of Entomology
Univ. of Georgia
Athens, GA 30602
706-542-2311
Fax: 706-542-2279
E-mail Address: rmatthew@uga.edu

8. Penny Oldfather

Titles of Presentations: Teaching Students to Conceptualize the Future

Dr. Penny Oldfather is professor in the Early Childhood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he received her B.A. in Education from Oberlin College, an MA.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Dakota and a Ph.D. from The Claremont Graduate School in Claremont, CA.

Dr. Oldfather was a public school teacher for sixteen years. She was a teacher of gifted students and an administrator of gifted programming for seven of those years. She has bee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ince 1990. She has served as Associate Editor of the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She has worked intensively with the Reading and Writing for Critical Thinking Project in the Republic of Georgia (part of the former Soviet Union),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nd the Open Society Institute of the Soros Foundation.

Dr. Oldfather's work focuses on social constructivism in teacher education, student motivation for literacy learning,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enny Oldfather, Ph.D.
E-mail Address: poldfath@uga.edu

9. Deborah Tippins

Titles of Presentations: Teaching Science as inquiry: Hands-on, minds-on oceanography and geology for K-8 science classrooms I & II.

Dr. Deborah J. Tippins received her Ph. D. in Science Education from Texas A & M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Science and Elementary Education departments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where she specializes in science for K-8 teachers and learners. She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 of Research for the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Most recently she was a Fulbright Scholar working with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gional Science Teaching Centers of the Philippin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ase-based pedagogy, sociocultural dimensions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eacher belief and cognition, reflective practice, portfolio and performance-based assessment and community situated science education. She is the co-author or editor of four books including: a) *The stigma of genius: Einstein, consciousness, and education*; b) *Cases in middle and secondary science education: The promises and dilemmas*; c) *Learning from cases: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elementary science teaching*, and d) *Just in case: Encounters in elementary science and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S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for her scholarship in science and teacher education including the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Gustav Ohaus Award for *Outstanding College Science Teacher*,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for Teacher Education *Outstanding Scholarship on Teacher Education Awar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Outstanding Early Career Research Award*, the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Teachers of Science *Innovations in Teaching Science Teachers Award* and the D. Keith Osborn, Sr. Faculty Senate Award for *Teaching Excellence*.

Deborah J. Tippins, Ph.D.
E-mail Address: debtippins@hotmail.com

10. Susan Winstead

Titles of Presentations: Spontaneous Problem Solving I & II.

Dr. Susan Winstead is a gifted teacher at Oconee Elementary School in Watkinsville, Georgia. She also teaches gifted certification classes for teachers. She earned her Ph.D. in Gifted and Creative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She has taught for fifteen years with twelve years in gifted education. Her passion is teaching and learning about gifted children. She is a wife and mom of two children.

.Susan Winstead, Ph.D.
E-mail Address: swinstea@uga.edu